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6/05

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- Economic Sentiment Index - (2013년 5월 기준)

우리 국민들은 2013년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느낄까요? 앞으로는 어떨 것이라고 전망할까요?

한국갤럽은 과거 연 2회 경제지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, 2013년 1월부터는 매월 단위로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(Economic Sentiment Index)를 제공합니다.

한국갤럽의 경제체감지수는 현재 경기 평가지수와 미래 경제 상황 전망지수로 구성되며 경제 체감과 연관된 지역, 연령, 직업 등 인구사회적 변인과 함께 주관적 생활수준, 경제정책 우선 과제 등을 분석합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
2. 표본크기: 1,216명
3. 조사방법: 휴대전화 RDD 조사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기간: 2013년 5월 27~30일(4일간)
5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6. 표본오차: $\pm 2.8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7. 응답률: 17%
8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✓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해결 과제는?: '일자리 창출' 49%, '물가 안정' 33%
- ✓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?: '나쁜 편' 72%, '좋은 편' 6%
- 4월 대비 경기평가지수 7포인트 상승, 1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 -
- ✓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?: '좋아질 것' 36%, '나빠질 것' 21%로
낙관이 비관보다 많아 - 석 달 연속 전망지수 하락(129→121→119→115)
- ✓ 주관적 생활수준은?: '상/중상층' 11%, '중층' 39%, '중하/하층' 4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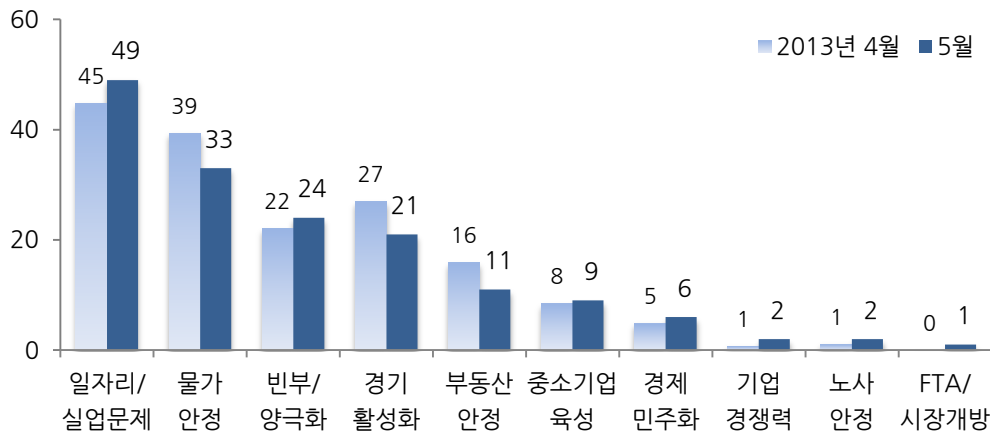
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해결 과제는?: '일자리 창출' 49%, '물가 안정' 33%

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과제는 '일자리 만들기'였다.

한국갤럽이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216 명에게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분야 과제를 묻은 결과(2 개까지 자유응답) '일자리 창출/실업문제 해소'가 49%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.

그 다음으로는 '물가 안정'이 33%, '빈부격차/양극화 해소' 24%, '경기 활성화' 21%, '부동산 안정' 11% 순이었다.

▶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과제는? (단위: %)



질문) 귀하께서는 경제 분야의 과제 중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요? (2 개까지 자유응답)

경제분야 우선 과제 응답에는 각 계층별로 처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.

- '일자리 창출'을 희망하는 사람은 취업을 앞둔 20대(60%), 대학생(60%)에서 가장 많았고 무직/기타에서 58%로 많았다.
- '물가 안정'은 여성(39%), 주부(40%), 블루칼라(43%)에서 많이 응답됐으며
- '경기 활성화'는 자영업자(32%)가 특히 우선 과제로 꼽았다.
- '빈부격차/양극화 해소'는 30/40대(31, 28%), 화이트칼라(29%)에서 가장 많이 응답됐다.

▶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과제는? (응답자 특성별 - 상위 5위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일자리 창출/ 실업문제 해소	물가 안정	빈부격차/ 양극화 해소	경기회복/ 경제활성화	부동산 안정
전체		1,216	49	33	24	21	11
성별	남성	602	45	27	27	20	11
	여성	614	52	<u>39</u>	21	22	11
연령별	19~29세	221	<u>60</u>	32	23	17	12
	30대	246	45	33	<u>31</u>	20	12
	40대	266	42	32	<u>28</u>	24	14
	50대	231	51	30	23	24	8
	60세 이상	251	47	38	15	20	9
직업별	농/임/어업	27	36	28	22	16	3
	자영업	180	38	28	23	<u>32</u>	14
	블루칼라	144	48	<u>43</u>	21	22	8
	화이트칼라	362	46	<u>28</u>	<u>29</u>	22	13
	가정주부	305	51	<u>40</u>	22	17	12
	학생	107	<u>60</u>	31	21	15	5
	무직/기타	91	58	34	24	17	8
주관적 생활 수준별	상/중상	136	53	22	26	18	16
	중	475	47	34	24	22	12
	중하	335	50	30	26	23	10
	하	250	47	<u>40</u>	20	18	9

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?: ‘나쁜 편’ 72%, ‘좋은 편’ 6%

- 4 월 대비 경기평가지수 7 포인트 상승, 1 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 -

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 대해 묻은 결과

‘좋은 편이다’ 6%, ‘나쁜 편이다’ 72%, ‘보통’ 21%, ‘모름/응답거절’ 1%로

현재의 경기(景氣)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.

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10 년(57%)부터 계속 악화되어

올해 들어서는 80%에 이르렀으나 1 월 이후 소폭 감소 추세다(1 월: 81% → 5 월: 72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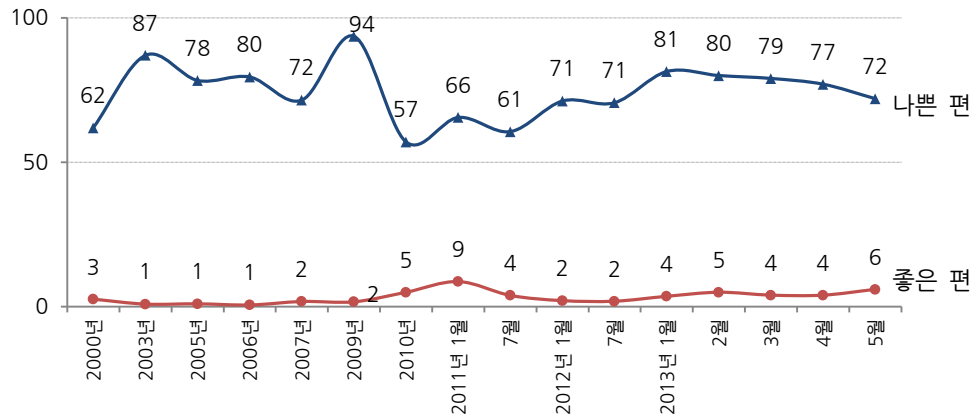
경기가 좋은 편에서 나쁜 편의 비율을 차감한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

- 연령별로는 20 대(44)와 60 세 이상(45)에 비해 30/40/50 대(26/25/31)의 경기평가가 낮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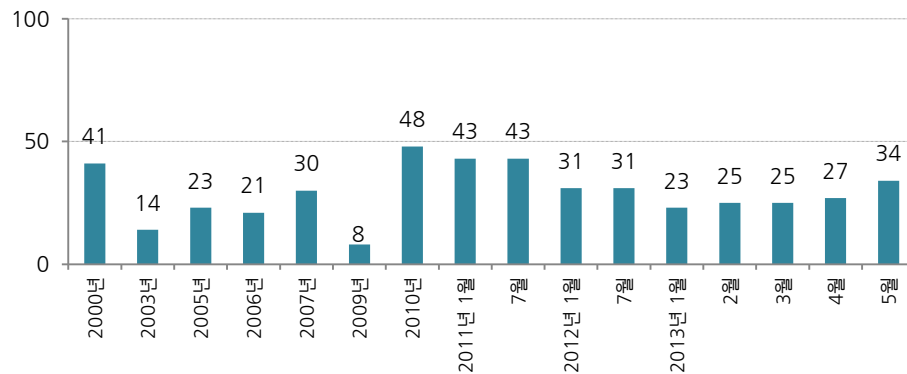
- 직업별로는 학생(52), 무직/기타(42)의 경기 평가가 높고

화이트칼라(25), 자영업자(30), 가정주부(35)의 경기 평가가 낮았다.

▶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는? (단위: %)



- 평가지수(좋은 편-나쁜 편+100)



질문)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, 즉 경기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▶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는? (2013년 5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좋은 편	보통	나쁜 편	모름/ 응답거절	평가지수
전체		1,216	6	21	72	1	34
성별	남성	602	6	20	72	1	34
	여성	614	6	21	72	1	34
연령별	19~29세	221	10	23	66	0	44
	30대	246	3	19	77	1	26
	40대	266	5	15	80	1	25
	50대	231	5	20	74	2	31
	60세 이상	251	7	27	62	3	45
직업별	농/임/어업	27	3	28	67	2	36
	자영업	180	9	13	78	0	31
	블루칼라	144	9	22	69	1	40
	화이트칼라	362	3	19	78	1	25
	가정주부	305	5	22	70	3	35
	학생	107	11	30	59	1	52
	무직/기타	91	7	24	65	4	42
주관적 생활수준 별	상/중상	136	11	19	69	0	42
	중	475	5	24	70	1	35
	중하	335	6	19	74	1	32
	하	250	6	17	74	3	32

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?: '좋아질 것' 36%, '나빠질 것' 21%로 낙관이 비관보다 많아
- 석 달 연속 전망지수 하락(129→121→119→115) -

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대부분이지만

향후 전망에서는 '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'이라는 낙관 전망이 더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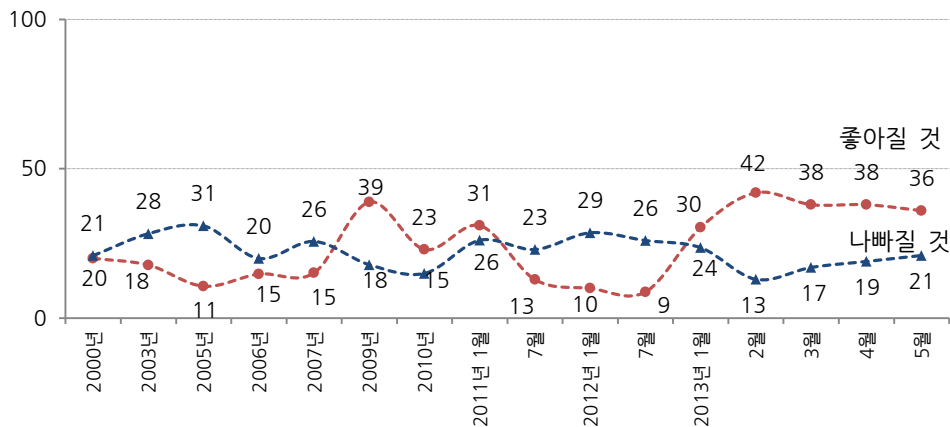
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묻은 결과 '좋아질 것' 36%, '나빠질 것' 21%, '비슷할 것' 36%,
 '모름/응답거절' 7%로 경기 전망은 낙관이 비관보다 많았다.

올해 들어 낙관 전망이 크게 상승했으나 2월(42%) 이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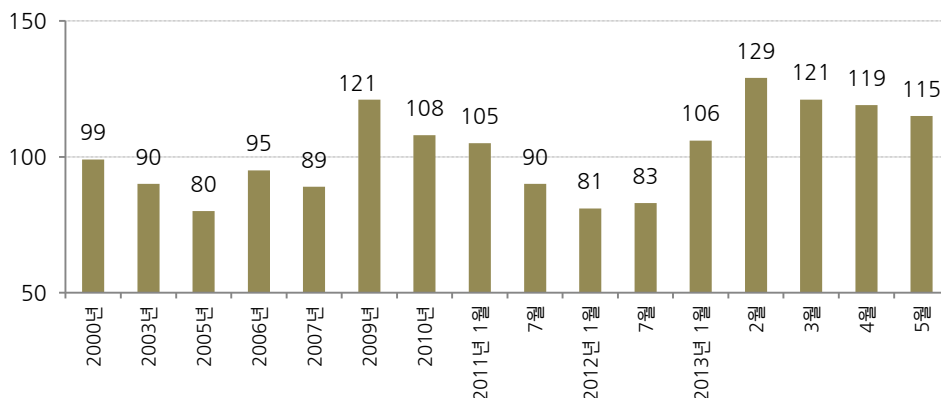
낙관에서 비관을 차감한 전망지수 기준에서 보더라도

129→121→119→115 로 전망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.

▶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? (단위: %)



- 전망지수(좋아질 것-나빠질 것+100)



질문)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,
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, 아니면 비슷할 것이라고 보십니까?

▶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면? (2013 년 5 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좋아질 것	비슷할 것	나빠질 것	모름/ 응답거절	전망지수
전체		1,216	36	36	21	7	115
성별	남성	602	37	34	23	6	114
	여성	614	35	37	20	8	115
연령별	19~29세	221	28	48	17	6	111
	30대	246	20	49	26	4	94
	40대	266	34	34	27	5	107
	50대	231	45	28	24	3	121
	60세 이상	251	53	20	11	16	142
직업별	농/임/어업	27	45	30	9	16	136
	자영업	180	38	29	30	4	108
	블루칼라	144	44	30	22	5	122
	화이트칼라	362	29	43	25	3	104
	가정주부	305	40	31	17	12	123
	학생	107	28	51	16	5	112
	무직/기타	91	40	28	15	17	125
주관적 생활 수준별	상/중상	136	39	38	18	5	121
	중	475	40	36	20	4	120
	중하	335	32	39	23	6	109
	하	250	35	26	24	15	1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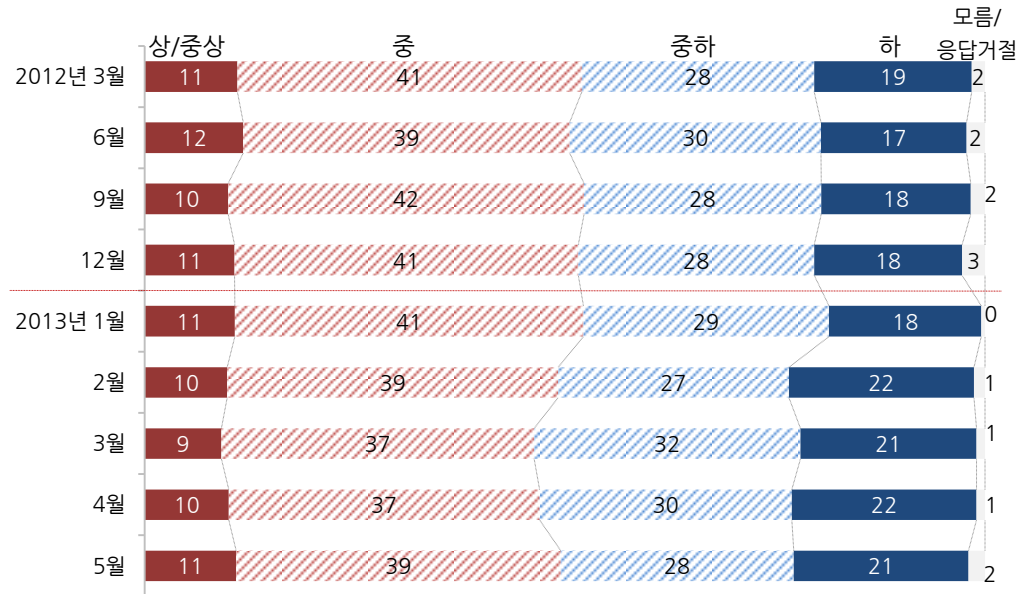
주관적 생활수준은?: '상/중상층' 11%, '중층' 39%, '중하/하층' 49%

주관적 생활수준을 묻은 결과 '상/중상층'이 11%, '중층' 39%, '중하층' 28%, '하층' 21%로 국민 절반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열 명 중 두 명은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했다.

스스로 중하층 또는 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 50 대 이상에서 열 명 중 여섯 명이 중하/하층이라고 답했다.

직업별로 농/임/어업(59%), 블루칼라(64%), 무직/기타(57%)에서 중하/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.

▶ 주관적 생활수준은? (단위: %)



질문)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, 중상, 중, 중하,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
귀 닥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▶ 주관적 생활수준 (2013년 5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상/중상	중	중하	하	모름/ 응답거절	중하/하
전체		1,216	11	39	28	21	2	49
성별	남성	602	13	35	29	22	1	51
	여성	614	9	43	26	19	2	45
연령별	19~29세	221	19	43	28	9	1	37
	30대	246	12	46	30	12	0	42
	40대	266	12	44	29	15	0	44
	50대	231	9	31	24	33	4	57
	60세 이상	251	5	31	26	35	3	61
직업별	농/임/어업	27	6	34	7	52	0	59
	자영업	180	8	38	29	24	0	53
	블루칼라	144	3	33	29	35	0	64
	화이트칼라	362	13	43	33	11	1	44
	가정주부	305	9	42	23	22	4	45
	학생	107	28	43	23	6	0	29
	무직/기타	91	13	24	27	30	6	57